

초보 사령탑? 두려움 없는 이범호 KIA 감독 “자신 있습니다”

올해 처음 1군 지휘...KIA 2군 감독·타격코치 거쳐
“젊은 감독은 시기가 아니다”는 말 없게 노력할 것”

KIA 타이거즈 지휘봉을 잡은 이범호 신임 감독은 1군에서 팀을 지휘한 경험이 없는 초보 사령탑이지만 자신감은 누구 못지않다. 수년간 선수단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그 누구보다 팀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이다. KIA는 지난 13일 이범호 1군 타격코치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계약 기간 2년, 계약금 3억원, 연봉 3억원 등 총 9억원에 계약했다. 수장으로 팀을 이끌게 된 이범호 감독은 14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아직도 실감이 안 난다. 선수들이 ‘감독님’이라고 하면 뭔가 기분이 이상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이를 동안 스프링캠프 선봉에 서서 팀을 지휘할 소감을 묻자 이 감독은 “선수들 표정

이 밝았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다. 그라운드에서 즐겁게 야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그걸로 만족한다”며 “선수들과 예전부터 교감하고 있어서 잘 지내고 있다.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지원하고 격려하는 감독이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KIA는 내부 승격과 외부 영입을 놓고 고심한 끝에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이 감독에게 손을 내밀었다. 예상치 못한 승격 소식에 이 감독은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직 나이가 젊고 팀 상황을 생각하면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는데, 감사하게도 선택해 주셨다. 보답할 수 있게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1981년생인 이 감독은 KBO리그 최초의 1980년대생 사령탑이다. 새 시대의 문을 연

이 감독은 KBO리그 현역 최고령인 1982년생 추신수(SSG 랜더스), 오승환(삼성 라이온즈), 김강민(한화 이글스)보다 고작 한 살 많다. KIA 선수 최고참인 1983년생 최형우와는 불과 두 살 차이이다. “최연소 감독인 걸 말씀해 주셔서 알게 됐다”고 말한 이 감독은 “나로 인해 ‘젊은 감독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19시즌을 끝으로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은 이 감독은 KIA에서 4년 동안 퓨처스(2군) 감독, 1군 타격코치, 스카우트를 맡으면서 선수들과 호흡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1군 선수단을 지휘하는 이 감독을 향한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한다. 이에 이 감독은 “경험이 없는 점을 걱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누구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군 감독, 1군 타격코치를 하면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것을 많이 봤다. 2군에서 감독을 맡을 때 많은 것을 느꼈고, 공부가 됐다. 팀을 운영하



이범호 KIA 타이거즈 감독.

는 것도 경험했다. 자신감이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내 옆에 좋은 코치님들도 많다.

함께 상의하면서 어려운 점들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이다.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범호가

탁구 치는 후배들 꾸중하다 손흥민 부상...클린스만은 구경만

주먹다짐 없었지만 선수들 사이에 먹살잡이 ‘충돌’
협회 “오랜 기간 합숙 하며 예민해진 측면 있어”



카타르 아시안컵 준결승 요르단전을 앞두고 손흥민과 이강인을 포함한 젊은 선수들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매체 ‘더 선’은 14일(한국시간) “손흥민이 한국의 아시안컵 탈락 전날 팀 동료들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손가락이 탈구됐다”고 단독 보도했다. 더 선은 소식통을 인용해 “몇몇 선수들이 탁구를 치기 위해 식사를 빨리 마치고 일어났다. 손흥민이 이들에게 다시 돌아와서 앉으라고

했는데 이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다. 손흥민은 다툼을 진정시키려다가 손가락을 다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실제 정황은 더 선 보도와 다소 달랐다. 협회에 따르면 카타르 현지 대표팀 숙소 식당 바로 앞에는 탁구장이 있었다. 요르단전 전날 저녁 식사 후 이강인 등 젊은 선수들 몇몇이 격하게 탁구를 즐겼고, 식당에는 클린스만 감독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수들이 있었다.

이에 손흥민 등 베테랑 선수들이 탁구를 과하게 치는 젊은 선수들을 향해 요르단전을 앞두고 있으니 자제하라는 취지로 꾸중을 했고, 이 과정에서 이강인 등이 대들며 다툼이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선수들 사이에 주먹다짐까지 벌어지지 않았지만 먹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이 손가락을 다쳤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충돌 직후 선수들이 서로 화해하면서 클린스만 감독 등 코칭스태프까지 개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오랜 기간 같이 합숙을 하면서 선수들이 예민해진 측면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선수들 간 다툼은) 다른 나라를 비롯해 축구팀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탁구장 옆 식당에서 이 상황을 모두 지켜봤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전 패배 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팀이 단합해야 한다”는 글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며 팀 내 갈등이 있었음을 암시한 바 있다. 클린스만 감독을 향한 경질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선수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만큼 내부 조직력까지 무너진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더욱이 원팀이 깨지는 분위기가 감지됐음에도 클린스만 감독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이다.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선수들을 둘러싸고 시추슬러야 할 책임이 있는 감독이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선수들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클린스만호를 향한 축구팬들의 실망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활 내려놓은 ‘양궁 여제’ 기보배

“다시 태어나면 절대 양궁 안 해”

은퇴 기자회견서 소회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걸며 2010년대 한국 여자 양궁을 이끌었던 ‘여제’ 기보배(36)가 현역 은퇴를 선언했다. 기보배는 14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7년의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소회를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다. 기보배는 “1997년 처음 활을 잡고, 27년 동안 이어온 선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며 “올림픽 금메달(3개)을 포함해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아시안게임, 국내대회 등에서 총 금메달 94개, 은메달 50개, 동메달 43개의 적잖은 성과를 냈다. 이 모든 결과는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정성에 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스승님과 선후배, 동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입을 열었다. 안양시중 3학년이던 2002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하며 일찌감치 여자 양궁을 이끌 재목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2010년 광주 아시안게임 단체전 금메달로 국제 무대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기보배는 2012년 런던올림픽 개인전과 단체전 2관왕,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단체전 금메달로 전성기를 보냈다. 이 시기 세계선수권대회에서도 금메달을 5개나 목에 걸며 명실상부 한국 여자 양궁의 간판으로 자리매김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런던올림픽 개인전 결승전을 꼽았다. 이 경기에서 기보배는 마지막 샷오프 끝에 아이다 로만(멕시코)을 극적으로 꺾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기보배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런던올림픽 샷오프의 마지막 한 발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한 발로 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었다. 힘든 과정과 순간이었지만 금메달로 이어지면서 제 인생에서 전환점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가장 아쉬웠던 순간은 4년 뒤, 리우올림픽 개인전 준결승이다. 대표팀 동료 장혜진에게 패해 결승 문턱에서 좌절, 개인전 2연패에 실패했다.

기보배는 당시가 생생히 기억나는 듯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연패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꿈이 컸다”며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라고 했다. 2017년 결혼해 이듬해 출산한 기보배는 긴 공백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8위로 태극마크를 달며 저력을 보여줬다. 기보배는 당시가 생생히 기억나는 듯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2연패를 기대하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꿈이 컸다”며 “다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라고 했다. 2017년 결혼해 이듬해 출산한 기보배는 긴 공백을 극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8위로 태극마크를 달며 저력을 보여줬다.

최종 평가전에서 후배들에게 밀려 결국 국제 무대에 나서지 못했지만 ‘엄마 공사’의 위대함을 보여줬다. 가족 얘기를 이어갈 때에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 보배는 “아이의 엄마와 아내로서의 역할을 잊지 않았다. 2018년 임신 2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비를 맞으며 활시위를 당기던 때가 생각난다”며 “중별선수권대회였는데



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 기보배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은퇴 기자회견에서 가족에게 27년 금메달 은퇴선물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때 1등을 했다. 그리고 출산 이후에 출전했던 2021년 올림픽폐기대회 회장대회에서 1등을 했다. 그때 받은 국내대회 메달이 올림픽만큼이나 값진 메달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억했다. 그러면서 “양궁 선수를 엄마로 둔 딸은 한창 응석을 부릴 나이에 엄마의 곁을 떠나서 지내야만 했다. 주말에만 만나는 엄마와 떨어져 지내며, 평평 울던 아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남편은 저의 훈련을 위해서 육아휴직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가족의 헌신적인 도움 덕분에 저는 지난해에 국가대표에 선발되는 등 은퇴하는 순간까지도 최고의 기량을 지킬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했다.

기보배는 딸에게 양궁을 시킬 계획은 없는냐는 질문에 “그동안 양궁뿐 아니라 모든 운동을 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는데 작년 전국체전을 10월에 마치고 이후 5개월가량 함께 지내보니 저 못지않게 승부욕이 강해 보인다”며 “본인이 원한다면 양궁이든 어떤 스포츠든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다”고 했다.

긴 시간 승부사로 살아온 기보배는 기자회견 내내 자주 눈물을 보였다. 기보배는 “다시 태어나면 절대 양궁을 하고 싶지 않다. 우리나라에 정말 기량이 좋은 선수들이 많다.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걸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다”며 “항상 긴장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게 힘들었다. 항상 무한 경쟁 속에서 내 목표를 이뤄야겠다는 부담감도 싫었다. 한국 양궁 선수로서 살아간다는 건 정말 힘든 것 같다. 다만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양궁을 사랑 하는 마음은 그대로일 것”이라고 글썽였다. 마지막으로 “항상 앞만 보고 달려왔던 제가 막상 활시위를 내려놓으려고 하니 실감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저의 반자리는 이제 든든한 후배들이 채워줄 거라 굳게 믿는다. 한국 양궁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프로배구 KB손해보험 후원정 감독, 성적 부진 자진 사퇴

감독, 성적 부진 자진 사퇴

프로배구 남자부 KB손해보험을 이끌어온 후원정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KB손해보험은 14일 “후원정 감독이 올시즌 계속되는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단은 후 감독의 사의를 수용하고, 김학민 수석코치에게 남은 시즌 감독대행을 맡기기로 했다. 후 감독은 “한결같이 응원해주시는 KB배구단 팬들에게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한 마음”이라며 “KB배구단 발전을 위해 스스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그동안 함께 고생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이 잔여경기를 잘 마무리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후 감독은 2021년 4월 KB손해보험 사령탑에 올랐다. 14일까지 KB손해보험은 4승23패 승점 18로 7위에 머물고 있다. 이번 시즌 남자부에서 10승도 달성하지 못한 팀은 KB손해보험이 유일하다.

한국 수영, AG 이어 세계선수권까지 금빛 역영

박태환 이후 최고 성적...파리올림픽 기대감

한국 수영 대표팀이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이어 ‘도하 세계선수권’에서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질주하고 있다. 황선우는 14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에스파이어돔에서 열린 2024 국제수영연맹 세계선수권대회 경연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44초75로 1위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세계선수권 자유형 200m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2일에는 김우민이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3분42초71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 수영은 역대 세계선수권에서 처음으로 금메달리스트를 2명을 배출했다. 단일 세계선수권에서 복수의 한국인 메달리스트가 나온 것은 이번이 최하다. 박태환이

2007년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 2011년 금메달 1개를 땀과 황선우가 2022년 은메달 1개, 2023년 동메달 1개를 땀다. 한국 수영은 이미 역사상 최고 성적을 예약했다. 이번 대회 다이빙에서 김수지가 여자 3m 스프링보드 동메달을, 김수지-이재경(인천시청)이 혼성 싱크로 3m 스프링보드 동메달을 딴 바 있다. 이 같은 선전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예고됐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수영은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10개 등 모두 22개 메달을 따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당시에도 황선우와 김우민을 필두로 백인철(전영) 등이 예상 밖의 선전을 펼치면서 한국 수영의 달라진 위상을 보여준 바 있다.